

나주시 출생아 수 3년 연속 늘었다

임신·출산·양육 아우르는

촉촉한 저출생 대응 정책 성과

전남 최대 공공산후조리원 재개원

나주시가 임신부터 출산, 양육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촉촉한 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3년 연속 출생아 수 증가라는 성과를 거두며 저출생 시대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나주시는 2022년 680명이었던 출생아 수가 2023년 735명, 2024년 788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5년에도 791명을 기록하며 3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전남도 22개 시군 가운데 3년 연속 출생아 수가 증가한 지역은 6곳에 불과하며 이 중 나주시는 도 내 5개 시 단위 가운데 유일하게 3년 연속 출생아 수 증가 성과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 증가와 함께 임신부 수도 늘고 있으며 2025년 나주시 등록 임신부 수는 843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63명이 증가해 향후 출생 증가 흐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합계출산율도 2023년 기준 나주시 합계출산율은 1.09명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며 도내 5개 시 단위 중 1위를 기록했으며 2024년에도 1.16명으로 1위를 유지하면서 전국 평균 0.72명을 상회했다.

시는 소득 기준과 횡수 제한을 폐지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비롯해 결혼 여부와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20세부터 49세까지 남녀를 대상으로 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임신부의 가사 부담을 덜기 위한 임신부 가사돌



오는 2월 재개원하는 나주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나주시 제공〉

봄 서비스도 호응을 얻고 있다.

임신 21주부터 출산 전까지 가정에서 가사돌봄 관리사를 파견해 회당 4시간씩 총 4회 청소와 정리 수납 등을 지원한다.

나주시는 2022년 11월부터 출산장려금 지급 조건이었던 6개월 의무 거주 요건을 폐지했으며 주소지 등록 후 하루만 거주해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전남도 지원금 10만원과 나주시 출생기본소득 10만원을 더해 매월 20만원을 18년간 지급하는 출생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 중이다.

출산 인프라도 강화에 나서 오는 2월 빛가람종합병원에 위치한 전남공공산후조리원 4호점이 기능보강공사를 마치고 재개원을 앞두고 있다.

전남 최대 규모로 운영될 나주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실을 18실로 확대하고 힐링 프로그램실과

임산부 전용 승강기를 신설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산모들에게 호응이 높았던 경혈마사지실, 요가실, 족욕실, 모유수유실 등을 새롭게 조성해 단순한 조리원을 넘어 산모 회복과 휴식을 지원하는 ‘작은 힐링 센터’ 공간으로 기능을 강화한다.

나주시는 앞으로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선택이 개인의 부담이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저출생 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부담이 아니라 희망과 행복이 되는 도시로 나주가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며 “출생과 양육 전 과정에 행정이 함께하는 정책과 오는 2월 개원을 앞둔 공공산후조리원도 더 넓고 쾌적하게 만들어 건강한 육아 환경 조성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장성 기업하기 좋다”...전국 기업들 ‘엄지 척’

대한상의 6850개 기업 체감도 조사

나노산업 조성 등 투자 유치 성과

장성군이 국내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장성군에 따르면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있는 685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환경 체감도 조사’에서 장성군은 창업·입지 부문 ‘톱(top) 10’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2개 분야에 동시 선정된 지역은 전국에서 장성군과 안양시, 안산시, 남해군 단 4곳뿐이다.

대한상의는 기초지자체 행정을 경험한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입지·행정 3개 분야에서 주관적인 만족도를 평가했다.

장성군은 나노산업단지 조성 이후 기업 투자를 꾸준히 유치해 왔다. 특히, 군 관리계획 상 제한업종을 정비해 다양한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 호평을 얻고 있다.

‘산업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등 10여 개 사업을 통해 경영 전문가 상담과 사제품 제작, 마케팅 등 다각도의 지원도 펼치고 있다.

지난 2024년에는 지역 농공단지 4곳이 ‘중소기



장성나노산업단지 조감도.

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돼 조세 감면과 금융 지원, 중앙부처 지원사업 우선 선정 등 혜택을 받고 있다.

이번 조사와 관련 이민창 한국규제학회 회장은 “규제가 완화되어 있고, 부지 활용 여력이 높은 지방 기초자치단체에서 공장 설립의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첨단산업 중심도시로 체질 개선을 해온 것이 기업의 좋은 평가로 이어지게 돼 매우 뜻깊다”라며 “기업 친화적인 도시, 일하며 살기 좋은 장성을 만들기 위해 더욱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함평군 태양광 발전 수익금 68개 마을에 환원

매년 7000만원 수익금 배분

함평군이 마을 태양광 발전 수익금을 환원해 지역 사회에 활력을 주고 있다.

함평군은 지난 2021년 지역에너지신산업을 통해 설치한 마을 태양광 발전소 수익금을 2024년부터 참여한 마을에 환원하고 있다.

지역에너지신산업은 마을 경로당·공용 창고 등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 생산된 전기를 판매하고 수익금을 마을에 배분하는 사업이다.

앞서 군은 2021년 공모사업으로 시행한 이 사업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며 2023년부터 수익이 발생했고, 2024년 1월부터 사업에 참여한 68개 마을에 매년 약 7천만 원의 수익금을 배분하고 있다.

수익금 환원은 태양광 발전사업의 성과가 지역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의미

가 있다.

군은 사업 시행으로 주민 편익을 높이는 한편,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주민 인식과 참여율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군은 지역에너지신산업과 더불어 가정용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등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까지 총 1448개소에 가정용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가정 전기요금 절감과 에너지 복지 향상에 힘쓰는다는 계획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성과가 주민 수익으로 이어지며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화순서 키운 한국춘란 500축 중국 수출길 올랐다

국내 최초 합법적 춘란 수출 사례

화순에서 키운 한국춘란 500축이 최근 중국 수출길에 올랐다.

이번 물량은 시험 수출의 의미를 띠며, 중국 푸젠성 장주시 남정현 지역 현지 유통업체로 향한다. 군은 추가 수출도 계획 중이다.

군에 따르면 이번 수출은 검역·환경·통관 등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한 전국 최초의 합법적 한국 춘란 수출 사례다. 그동안 비공식 거래에 머물렀던 난 유통 구조를 산업화·수출 중심 구조로 전환하는 중요한 정책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앞서 군은 중국 수출 성사를 위해 화순난농협회 사법인을 중심으로 전남도, 농림축산검역본부,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

2024년 4월 푸젠성과 난산업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화순 난 명품 박람회에도 푸젠성 남정현난화협회 회원들을 초청해 한국 춘란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아울러 현지 검역 기준·유통 구조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와 협의를 통해 일회성 수출이 아닌



구북구 화순군수가 지난 18일 열린 한국 춘란 최초 수출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출 구조를 마련했다.

군은 한국 춘란을 중심으로 난 산업을 고부가가치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고, 재배·유통·수출로 이

어지는 산업 구조를 더욱 체계화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속 가능한 난 산업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담양군, 새해맞이 모바일 걷기 ‘워크온’ 운영

26일~2월 8일 걷기 챌린지 진행

담양군이 새해를 맞아 오는 26일부터 2월 8일까지 온라인 걷기 챌린지 ‘새해엔 건강하단 말이야’를 운영한다.

이번 챌린지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워크온(Walk ON)’을 활용한 온라인 참여 방식으로 진행된다.

‘워크온(Walk ON)’은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자유롭게 걷기에 참여할 수 있는 모바일 걷기 애플리케이션이다.

참여 방법은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

토어에서 ‘워크온’ 앱(APP)을 설치하고 회원가 입한 뒤, 전체 커뮤니티에서 ‘담양군’을 검색해 ‘담양군 걷기 공식 커뮤니티’를 선택하면 된다.

참여 기간 총 9만 6000보를 달성한 참가자 중 선착순 500명에게 상품을 증정한다. 하루 최대 걸음 수는 8000보로 제한한다.

군은 지난 2021년 ‘워크온 커뮤니티’를 개설해 군민의 일상 속 걷기 실천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다양한 건강 주제별 걷기 챌린지를 총 5회 운영했으며 6938명의 군민이 참여하는 등 호응을 얻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한 사람의 보험비로
전 국민의 경제부담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병원 입원 알바』
고수의 보장
보험 가입 필
http://X&3@%MOT

알바 댄데 해볼래?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STOP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경찰청
SEoul NATIONAL POLICE AGENCY

금융감독원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생명보험협회
Life Insurance Association

손해보험협회
Accident Insurance Association

IGAFA 보험GA협회
한국보험사기방지지원본부